(주)한국원종

양계 세미나 개최

(주)한국원종(대표이사 고도욱)은 지난 6월 2일 대천 오션뷰리조텔에서 (주)체리부로 협력 농장주와 임 · 직원, 계영농산(주) 임 · 직원 및 전국 주요 부화장 임 · 직원을 대상으로 양계세미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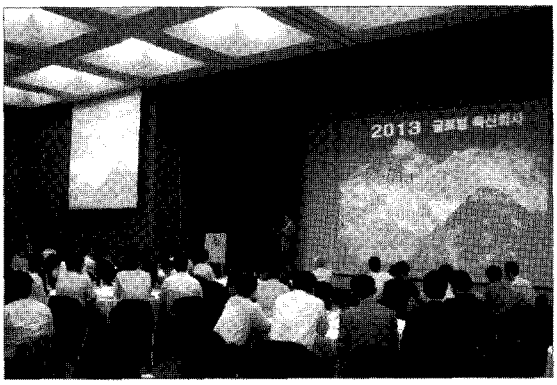
양계시설과 사육기술 선진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아비아이젠(Aviagen CO.,LTD)社의 사육 분야별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전문적이고 다양한 선진 사양기술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환기 전문가인 버나드 그린(Mr. Bernard Green)의 '혹서기 환기 관리', 양계전문 수의사 라파엘 몬레온(Dr. Rafael Monleon)의 'IBH, CAV, TRT 질병과 예방', 기술지도 매니저 마크라이트(Mr. Mark Wright)의 '40주 이후 수탉 관리' 교육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한국원종의 고도욱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를 통한 기술 및 정보교류 기회를 통해 선진 축산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사료BU

하반기 국내 영업전략회의 개최



CJ그룹은 지난 5월 7일 2013년 Global CJ, 2020년 Great CJ의 기치를 내걸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중장기 목표로 2020년 그룹 매출 100조원, 영업이익 10조원과 글로벌 매출 비중 70% 이상을 달성하고 CJ Way 실천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딩기업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CJ그룹의 글로벌 중심에 있는 사료BU(BU장 박호인)는 지난 6월 18일 하반기 국내영업 전략회의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전략과 비전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사료BU는 제2도약의 선포와 함께 CJ Way에 대한 구성원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왔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다며 이번 회의를 주관한 장재운

교육담당은 밝혔다.

박호인 사료BU장은 "CJ Way는 그동안 CJ를 이끌어왔던 CEO경영철학, CJ만의 강점, 미래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습을 토대로 정립되었다"고 전하면서 "CJ Way의 생활화로 글로벌 축산회사가 되자"는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CJ Way는 인재와 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강유인재, 강유문화라는 테두리안에 CJ핵심가치 열정, 창의, 정직을 바탕으로 OnlyOne을 실천하는 것이 CJ의 궁극적인 비전(목표)이자 지향점이라는 가치체계를 말한다.

이날 참석한 이강철 지구부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CJ인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실천해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과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다"며 "회사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일치시켜 글로벌 축산회사로의 비전에 동참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

창립 41주년 기념식 개최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대표이사 정세진)는 지난 6월 11일 창립 41주년을 맞아 임직원 및 웰빙파트너 등과 함께 창립 기념식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새롭고, 뜨겁게, 도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창립기념 행사는 최광일 사목이 인도하는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우수기사 포상, 기념촬영, 도서바자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금번에는 구성원들이 기증한 도서들로 도서바자회를 마련했는

데, 수익금 및 모금된 금액을 당사 동우회 '서툰사람들이' 후원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보금자리이자 그들의 재활을 돕는 기관인 '광명원'에 기부했다.

정세진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4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서부그룹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 왔다. 누구나 시련을 극복하며 강해지듯이 이제 우리 서부그룹도 크게 도약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 식품사업의 건강 컨설팅 활동의 확산, 해외 농축산 컨설팅사업의 활성화 및 구성원들의 인적자원 일류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오늘 41주년을 맞이하여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 다시 한 번 전진하자"고 덧붙였다.

이후 부천 성주산 체육공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어졌다. 120여명의 임직원이 4개 팀으로 나누어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 각 조별 응원단장을 필두로 하여 응원전 및 단체줄넘기, 9인10각, 단체줄다리기, 닭싸움, 이어달리기 등의 경기를 통해 서부가족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는 초일류 식품종합기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새롭고 뜨겁게 도전할 것을 다함께 다짐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하절기 특수 배합 적용, 특수사료 공급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균)는 여름철 섭취량이 줄어들며,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부터 전 제품 하절기 특수 배합을 적용하고, 특수사료를 공급하여 퓨리나사료만의 차별화된 하절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하절기 사료 특수 배합은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내 생리 활성을 활발하게 유지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올해와 같이 봄이 없이 갑작스럽게 여름으로 접어들며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면 가축의 섭취량과 면역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되는데 하절기 특수배합은 농장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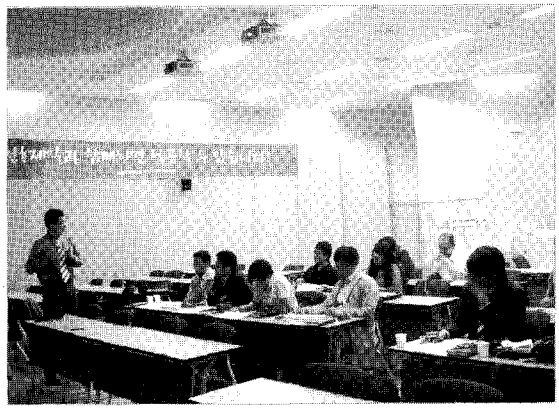
양돈, 축우, 양계 전 사료에 퓨리나의 영양 기술을 적용하여 증체가 잘 되고 사료효율이 개선되도록 비타민 및 미네랄을 보강하고, 기호성이 좋은 원료를 선별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수 배합은 무더위가 가시는 9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천하제일사료

양돈 엘리트 양성 교육 실시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5월 26일 중앙연구소에서 지역부장을 대상으로 양돈 엘리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지역부장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2개월마다 실시되는 정기 교육과는 별도로, 1년 2회 진행되는 양돈 엘리트 양성 교육으로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로 다가서기 위한 심도 있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고객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장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부장 16명이 현장전문지식 강화를 위해 참가했다.

이날 교육은 농장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며 현장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농장의 생산성 저하 등 주요 문제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 대책을 제안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현장서비스능력을 전문적으로 강화했다.

이어 천하제일만의 현장 서비스인 농장 정밀 진단 서비스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이룬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농장 정밀 진단 서비스는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양, 사양관리, 질병, 농장의 시설환경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로써 농장의 생산성과 수익 향상을 돕게 된다. 정밀진단 서비스인 만큼 1:1 맞춤형 서비스로 보다 정밀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